

Sharp Grotesk 한글

Sharp Grotesk Superfamily Overview - Scripts

Sharp Grotesk (Extended Latin)

Latin

Pan Euro

Кириллица
Ελληνικά

Hangul

한글

Thai

ภาษาไทย

Japanese (coming soon)

日本語

Sharp Grotesk Superfamily Overview - Width / Weight Range

Sharp Grotesk Pan Euro Latin кириллица Ελληνικά	Thin	Light	Book	Medium	Semibold	Bold	Black
05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06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07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08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09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10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11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12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13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14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adθ
Sharp Grotesk Thai ภาษาไทย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15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16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17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18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19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ก	adθ
Sharp Grotesk Hangul 한글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0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1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2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3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4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25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ก한	adθ

Sharp Grotesk Hangul Width / Weight Overview

	Thin	Light	Book	Medium	Semibold	Bold
20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21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22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23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24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25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불시착

서태지와아이들

Bold 20 – 70pt

블루 파프리카

Bold 21 – 70pt

나상현씨밴드

Bold 22 – 70pt

버블 사운드

Bold 23 – 70pt

은방울 자매

Bold 24 – 70pt

트윈폴리오

Bold 25 – 70pt

서울전자음악단

Semibold 20 – 70pt

언니네 이발관

Semibold 21 – 70pt

볼빨간사춘기

Semibold 22 – 70pt

황신혜 밴드

Semibold 23 – 70pt

담소네공방

Semibold 24 – 70pt

전기뱀장어

Semibold 25 – 70pt

에프티아일랜드

Medium 20 – 70pt

오렌지 카라멜

Medium 21 – 70pt

트러블메이커

Medium 22 – 70pt

골든 차일드

Medium 23 – 70pt

몬스타엑스

Medium 24 – 70pt

방탄소년단

Medium 25 – 70pt

머드더스튜던트

Book 20 - 70pt

언오피셜 보이

Book 21 - 70pt

키네틱플로우

Book 22 - 70pt

바밍 타이거

Book 23 - 70pt

소울커넥션

Book 24 - 70pt

리미와감자

Book 25 - 70pt

장기하와얼굴들

Light 20 – 70pt

스웨덴 세탁소

Light 21 – 70pt

디어클라우드

Light 22 – 70pt

웨스턴 카잇

Light 23 – 70pt

로맨틱 펀치

Light 24 – 70pt

악동뮤지션

Light 25 – 70pt

둘째이모김다비

Thin 20 - 70pt

김희철 & 김정모

Thin 21 - 70pt

사이버클래스

Thin 22 - 70pt

환불 원정대

Thin 23 - 70pt

핫젝갓갈지

Thin 24 - 70pt

셀럽파이브

Thin 25 - 70pt

광야의 길을 탐내지 마라
I'm On My Next Level

Bold 20 – 40pt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What's The Name?

Bold 21 – 40pt

나는 궁금해 미치겠어
Against The Villain

Bold 22 – 40pt

널 파괴하고 말 거야
Show Me The Way

Bold 23 – 40pt

사람들과 멀어지는
That's My Naevis

Bold 24 – 40pt

강해져 자유롭게
Yes Black Mama

Bold 25 – 40pt

**들뜨는 기분에 완벽한 날
I Can Make The Beat**

Semibold 20 – 40pt

**날 보며 떨리는 네 눈빛
Yes, Make Your Day**

Semibold 21 – 40pt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
Heartbeat? Check**

Semibold 22 – 40pt

**너에게만 주고 싶어
Something Crazy**

Semibold 23 – 40pt

**불꽃들이 타올라요
Another Chance**

Semibold 24 – 40pt

**두 눈을 맞춘다면
Icecream Cake**

Semibold 25 – 40pt

눈빛 속 차가운 가식들이
Just Like Her, I know

Medium 20 – 40pt

지금 이 느낌이 싫어 난
I Wanna Be Pretty

Medium 21 – 40pt

원망할지도 몰라서요
Yo, Don't Lie To Me

Medium 22 – 40pt

날 안아줄 사람 없어
Nobody Wants Me

Medium 23 – 40pt

겉에 아무도 없어요
I Think I Am Ugly

Medium 24 – 40pt

따뜻한 사람 없어
And I'm All Alone

Medium 25 – 40pt

상처 가득 단단한 불투명
We Don't Wanna Hide

Book 20 – 40pt

순수한 내 안에 섞여요
The Dark Red Light

Book 21 – 40pt

끝을 알 수 없는 바람
Natural, Invincible

Book 22 – 40pt

강렬하게 반짝인 너
Shining Intensely

Book 23 – 40pt

검붉어지는 태양빛
Burning Passion

Book 24 – 40pt

떨어진 한 방울의
At Destinations

Book 25 – 40pt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I Just Laughed Over

Light 20 – 40pt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Holding Your Hand

Light 21 – 40pt

생각들도 달라지겠지
Your Lovable Eyes

Light 22 – 40pt

좋아진 그 다음부터
Definitely Change

Light 23 – 40pt

싫어해서가 아니야
Getting Peaceful

Light 24 – 40pt

꿈을 꾸기도 했어
Innocent Heart

Light 25 – 40pt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Shining In Your Eyes

Thin 20 – 40pt

언젠가의 그 날을 향해
I'm Mad About Me

Thin 21 – 40pt

거울 안에 내게 말해
Exactly The Same

Thin 22 – 40pt

너도 하늘을 보잖아
Survive Each Day

Thin 23 – 40pt

어디에도 존재하지
Moving Towards

Thin 24 – 40pt

나와 똑같다는 것
Others Knowing

Thin 25 – 40pt

블록버스터

Bold 25 – 70pt

아메바컬처

Semibold 25 – 70pt

브랜뉴뮤직

Medium 25 – 70pt

지기펠라즈

Book 25 – 70pt

붓다베이비

Light 25 – 70pt

마스터리플랜

Thin 25 – 70pt

와비사비룸

Bold 24 – 70pt

제이클레퍼

Semibold 24 – 70pt

인크레더블

Medium 24 – 70pt

솔튼페이퍼

Book 24 – 70pt

프라이머리

Light 24 – 70pt

허클베리피

Thin 24 – 70pt

강남스타일

Bold 23 – 70pt

수취인불명

Semibold 23 – 70pt

착해빠졌어

Medium 23 – 70pt

여름 이야기

Book 23 – 70pt

뻔한 멜로디

Light 23 – 70pt

충분히 예뻐

Thin 23 – 70pt

오래된 노래

Bold 22 – 70pt

날씨의 요정

Semibold 22 – 70pt

아메리카노

Medium 22 – 70pt

잠깐 나올래

Book 22 – 70pt

밤이 깊었네

Light 22 – 70pt

들었다놔다

Thin 22 – 70pt

광화문에서

Bold 21 – 70pt

내손을잡아

Semibold 21 – 70pt

잊지말아요

Medium 21 – 70pt

잠시만안녕

Book 21 – 70pt

기억의습작

Light 21 – 70pt

심장이없어

Thin 21 – 70pt

당신이 좋아

Bold 20 – 70pt

사랑의미로

Semibold 20 – 70pt

오빠만 믿어

Medium 20 – 70pt

머나먼 고향

Book 20 – 70pt

동백아가씨

Light 20 – 70pt

영원한 친구

Thin 20 – 70pt

니 전부를 다 내놔라
Around Your Work

Bold 25 – 40pt

일그러져 내 표정이
Some Time For Me

Semibold 25 – 40pt

좋아하지 않는 척을
Wait For My Reply

Medium 25 – 40pt

집착 같은 거는 안해
I Will Be Deceived

Book 25 – 40pt

괜히 미안해서 그래
Not Wanna Take It

Light 25 – 40pt

너의 답장을 기다려
Going To Pretend

Thin 25 – 40pt

점점 더 멀어져 간다
A Lingering Youth

Bold 24 – 40pt

비어가는 내 가슴속
Bits Of Memories

Semibold 24 – 40pt

또 하루 멀어져 간다
Parting Everyday

Medium 24 – 40pt

내뿜은 담배 연기와
My Love That Left

Book 24 – 40pt

청춘인 줄 알았는데
Get Further Away

Light 24 – 40pt

매일 이별하며 살고
The Rest Of What

Thin 24 – 40pt

버킷리스트 다 봐야해
I Had A Nightmare

Bold 23 – 40pt

돌팔이 의사가 사망을
Comical Situations

Semibold 23 – 40pt

저 뒤집어엮는 가족들
In My Last Memory

Medium 23 – 40pt

꿈이잖아 깨워줘 당장
Spilting Headache

Book 23 – 40pt

이렇게 죽을순 없어요
It's Like Panorama

Light 23 – 40pt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On The Bucket List

Thin 23 – 40pt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Unsolvable Riddles

Bold 22 – 40pt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
Such Big Meanings

Semibold 22 – 40pt

창을 내리 바람부는 창
Each Word You Say

Medium 22 – 40pt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Open My Windows

Book 22 – 40pt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A Difficult Promise

Light 22 – 40pt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
Aromatic Scent Is

Thin 22 – 40pt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The Glow Of Firefly

Bold 21 – 40pt

첫 입맞춤을 떠올려봐요
Remember The Kiss

Semibold 21 – 40pt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The Farthest Place

Medium 21 – 40pt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Letter On The Sand

Book 21 – 40pt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Where Waves Were

Light 21 – 40pt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You Will Disappear

Thin 21 – 40pt

내가 지쳐 혼자라 느낄 때
If You Failed At Love

Bold 20 – 40pt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
We Draw On The Sky

Semibold 20 – 40pt

당신을 쓰러뜨릴 순 없어
It Is Heart-breaking

Medium 20 – 40pt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요
You Can Start Again

Book 20 – 40pt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Let's Wipe The Tear

Light 20 – 40pt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Gather Our Feelings

Thin 20 – 40pt

90pt

블랙핑크

40pt

**K-POP 3세대 대표 아이돌,
해외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30pt

**핑크를 블랙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덧붙여 ‘예쁘게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 의미를 담고 있다.**

20pt

**크게 두 가지 음악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다크한 힙합 컨셉의
블랙과 밝고 귀여우며 사랑스러운 팝 댄스 컨셉의 핑크가
대비를 이루며, 장르 불문하고 모든 음악들을 블랙핑크의
색에 맞춰 담아내어 표현하고 있다.**

18pt

블랙핑크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 성향을 지니고 있어 팬과 대중의 귀를 동시에 사로잡으며 공전의 히트곡들을 다수 만들어 내고 있다. 전체적인 음악 프로듀싱은 테디가 전담하고, YG의 자회사 및 테디가 대표로 있는 더블랙레이블 소속의 프로듀서들이 작사·작곡에 참여하고 있어, 매 앨범의 퀄리티가 높으며 전곡이 호평을 받고 있다.

14pt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지수는 탄탄한 발성과 안정적인 라이브 소화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메인래퍼와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제니는 노래와 랩, 춤 모든 포지션에서 준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뛰어난 끼를 지니고 있다. 메인보컬과 리드댄서를 맡고 있는 로제는 매력적이고 독보적인 음색을 주무기로 보컬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예쁜 춤선으로 댄스 소화 능력이 탁월하다. 메인댄서와 리드래퍼를 맡고 있는 리사는 아이돌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재능으로 프로댄서들의 춤을 가장 잘 추는 아이돌로 자주 거론되며 랩 또한 현역 탑 래퍼들한테 인정받는다.

11pt

제니의 첫 솔로 싱글 타이틀 곡인 «SOLO»는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 최초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8억뷰를 돌파하였다. 또한 스포티파이에서 국내 솔로 가수 중 최초로, K-POP 가수 데뷔곡 중 최초로 3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로제의 첫 솔로 앨범 «-R-»은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 첫 번째로 하프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고, 빌보드 핫 100에서 70위에 진입하며 여자 솔로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와 빌보드 익스클루딩 U.S. 차트에서 국내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전 세계 여가수 중 4번째로 두 차트 모두 1위를 석권했다. 리사의 첫 솔로 앨범 «LALISA» 역시 초동 약 73만장으로 역대 여자 솔로 초동 1위를 기록했다.

8pt

블랙핑크라는 그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 음악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으로 녹여낸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 내재되어 있는 어둡고 절망적인 요소와, 동시에 밝고 행복한 요소들을 다양한 가사와 음악 스타일로 담아내고 있다. 데뷔곡인 휘파람과 불바야는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녹여낸 곡이고, 어두운 내면의 사랑의 주제를 다룬 <Kill This Love>도 대표곡 중 하나이다. 세 곡 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 곡들이며, 핑크 컨셉의 맞춘 마지막처럼이나 <Ice Cream>과 같이 밝고 통통 튀는 느낌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한 곡들도 사랑받았다.

6pt

두 번째 음악 특성은 걸스힙합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당하며 내/외면의 강인한 자아를 표현하는 걸스힙합은 걸크러시라는 컨셉과 함께 블랙핑크만의 강렬하고 뽀뽀 힙합비트 느낌의 곡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뚜두뚜두>가 있으며, 수록곡인 <Pretty Savage>도 걸크러시 컨셉의 가사와 힙합비트로 블랙핑크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낸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의 2020년 6월에 발표한 <How You Like That>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걸스힙합의 곡 성향을 띠고 있지만 곡의 가사소개를 보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비상하자는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곡으로, 걸크러시 컨셉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자아성찰도 표현한 곡이라 할 수 있다. 힙합비트의 EDM 사운드와 오리엔탈 사운드를 접목시킨 곡으로 앞으로 블랙핑크가 뮤지션으로써 한층 더 성숙하고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또 하나의 대표곡이 되었다. 또한 외국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90pt

방탄소년단

40pt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그룹으로 성장했다.**

30pt

**전반적으로 10대와 20대 청춘들의
생각과 고민, 삶과 사랑, 꿈과 역경을
주요 주제로 하는 노래한다.**

20pt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10대, 20대가 겪는 힘든 일과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TS’는 ‘BangTan Sonyeundan’의 준말이다.**

18pt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은 전세계에서 3,000만 장 가량의 음반을 판매하였고,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 그룹이다. 방탄소년단은 32개의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29개의 멜론 뮤직 어워드, 24개의 골든 디스크, 19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과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14개의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10개의 MTV 유럽 뮤직 어워드, 6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14pt

방탄소년단은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이 활발하여 2017년과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트윗을 기록한 연예인이자 트위터 최다 활동 음악 그룹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2017년 라인프렌즈와 협업하며 직접 창작한 캐릭터 <BT21>을 선보였고, 현재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그룹명의 의미에 맞게 사회 활동 및 자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5억 원을 기부하였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두 차례 연설하였고, 이를 계기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11pt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 이후 2년여 동안 학교 3부작 시즌제 앨범(2013-2014)을 발표했고, ‘꿈 없어졌지 / 숨 쉴 틈도 없이 /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이 다인 쳇바퀴 / 같은 삶을 살며 일등을 강요’(N.O) 등의 가사를 통해 현재의 교육 현실이나, 청소년의 꿈에 대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청춘 2부작 시즌제 앨범(2015)를 통해서 n포 세대(찢어), 수저론, 열정페이(뱀새) 등 청춘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를 다뤘다(청춘 2부작). 이처럼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발표 이후가 전환점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곡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8pt

2017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사회변화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준비한 사회변화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와 유니세프의 범세계적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ENDviolence)’가 만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를 위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펀드를 구축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5억원을 기부했으며, 향후 2년간 ‘LOVE YOURSELF’ 시리즈 앨범 판매 순이익의 3%, 캠페인 공식 굿즈 판매 순익 전액 등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6pt

방탄소년단은 서태지와 아이들, 퀸, 나스, 에미넴, 드레이크, 포스트 말론, 찰리 푸스, 데인저 등을 통해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 또한 문학적, 심리학적, 예술적, 철학적 작품에서도 영감을 얻었는데, 정규 2집 음반 «WINGS»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타이틀곡 <피 땀 눈물>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인용했으며, 뮤직 비디오에서는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의 그림 «이카로스를 위한 탄식», 피터르 브뤼헬 더 아우더의 그림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과 «반역 천사의 추락»이 등장하였다. 또한, <봄날> 뮤직 비디오에서는 어슬러 K. 르권의 단편 «오벨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장면이 등장한다. LOVE YOURSELF 시리즈 음반은 주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정규 3집 음반 «LOVE YOURSELF 'Tear'» 수록곡 <Magic Shop>은 제임스 도티의 회고록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에서 영감을 얻었다

90pt

르세라핌

40pt

2022년 5월 2일에 데뷔한
쏘스뮤직 소속의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30pt

그룹명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확신과 강한 의지를 내포한다.

20pt

미니 2집 «안티프레자일»이 발매 첫날 일본에서 3만 6,812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7일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르세라핌의 음반은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정상으로 직행하며 일본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끌고있다.

18pt

르세라핌은 해외 음악 시장에서도 한층 높아진 위상을 과시 중이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17일 자 차트에 따르면, 타이틀곡 «안티프래자일»은 총 15개 국가/지역의 ‘일간 톱 송’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일간 톱 송’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각각 16위, 27위, 30위에 올랐다.

14pt

LE SSERAFIM의 웹툰 및 소설 세계관인 크림슨 하트와 별개로 앨범 스토리텔링 컨셉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데뷔 앨범인 미니 1집 FEARLESS의 프로모션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과 성공을 의미하는 엔젤 넘버 ‘326-8469’가 등장하는 CASTING CALL에서 LE SSERAFIM 브랜드 런웨이를 할 멤버들이 캐스팅 오디션을 본 후 2022 “FEARLESS” SHOW 무대에 섰으며, 이후 미니 2집 «ANTIFRAGILE»의 트레일러 <The Hydra>에서도 새 앨범에 대한 런웨이를 했다.

11pt

르세라핌의 신곡 «안티프래자일»의 공식 퍼포먼스 영상이 오늘(27일) 오전 7시 현재 총 조회 수 1,327만 건을 돌파했다. 스페셜 퍼포먼스 비디오, 두 가지 버전의 안무 연습 영상,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 총 4편의 공식 영상은 오늘 오전 7시 기준 각각 498만, 283만, 123만, 423만 뷰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20일 공개된 안무 연습 영상은 칼군무와 ‘칼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정된 앵글로 촬영된 이번 영상에서 멤버들은 팔을 뻗는 각도, 몸을 굽히는 높이까지 완벽하게 맞춰 감탄을 자아낸다.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틱톡에서 ‘ANTIFRAGILE’ 음원이 사용된 영상의 수는 2만 5천 건을 돌파했다.

8pt

안티프래자일 곡에 대한 설명은 ‘힘든 시간 역시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해지겠다’로 쓰여있다. ‘힘든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팬이 아닐지라도 멤버 탈퇴를 연상하게 하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다. 그간 많은 아이돌이 같은 이슈를 두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천천히 부정 이슈를 지워갔던 것에 비해,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를 수면 위로 끌어내 단번에 해소하고자 하는 과감한 길을 택했다. 없어낸 멜로디도 이러한 해소가 묻어간다. 아프로 라틴(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을 혼합한) 스타일의 팝 장르에 무게감 있는 라틴 리듬을 가미했다. 라틴이 주는 강렬한 사운드는 더없이 생동감 넘치고 비트는 박력 있다.

6pt

‘ANTIFRAGILE’의 마지막 무대를 마친 르세라핌은 14일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Impurities’ 뮤직비디오를 게재하며 후속곡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힙합 리듬과 감미로운 코드 진행이 조화로운 R&B 장르의 ‘Impurities’는 모험을 하면서 생긴 상처와 새롭게 섞여 들어온 욕망으로 인한 불투명함 모두 내가 견뎌온 시간이 남긴 흔적이자 상징이라고 말하는 곡이다. 이 곡은 이달 말 웹툰, 웹소설 형태로 공개 예정인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 ‘크림슨 하트(Crimson Heart)’의 테마곡이기도 하다. ‘Impurities’ 뮤직비디오는 프로덕션 매핑 기법을 활용해 불순물이 섞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어 순백의 의상을 입은 다섯 멤버는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유려한 춤선이 돋보이는 칼군무로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르세라핌은 오는 18일 KBS2 뮤직뱅크, 20일 SBS 인기가요에서 ‘Impurities’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이틀곡때와는 또 다른 유려함이 돋보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새롭게 집중시키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90pt

아이유

40pt

아이유는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30pt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십수 년째 사랑받고 있다.

20pt

2011년에 연기자로 데뷔한 후에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야말로
올라운더로 인정 받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며, 많은
아이돌들의 롤모델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

18pt

다수의 메가 히트곡을 보유하며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단적으로 데뷔 3년 차였던 2010년부터 발매한 모든 노래들이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랭크되었을 만큼 사실상 대중적으로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다. 10대 시절부터 가창력과 소녀스러움을 함께 선보인 곡들이 대중에게 특히 어필되었다.

14pt

20대 초반에는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 세대를 초월하여 폭넓은 리스너층을 확보한 <너의 의미>가 수록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한 앨범 «CHAT-SHIRE»등을 기점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 전향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이는 십수 년째 국민적 인기와 영향력을 이어가는 통런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 후 앨범 프로듀싱과 거의 모든 곡의 작사를 자신이 직접 하면서 발매하는 곡들마다 히트곡으로 만들어내며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11pt

씨클차트 집계 이래 대한민국 가수 중 그룹과 솔로를 모두 포함하여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라는 영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2010년 이후 발매한 음원 중 대중적으로 히트에 실패한 타이틀 곡이나 선공개 곡, 디지털 싱글이 단 한 곡도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앨범의 높은 완성도로 인해 앨범이 발매되면 수록곡 전곡을 들어보는 대중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수록곡 전체가 차트 최상위권에 랭크되며 사랑받는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OST나 다른 가수의 곡에 피쳐링한 곡들도 최상위권에 랭크되며, 이들 중에는 웬만한 타이틀 곡과 비슷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곡들이 있을 정도다.

8pt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대중성뿐만 아니라 거대 팬덤을 보유한 가수임을 입증하면서 한때 대중성에 비해 팬덤이 약한 것이 흠이라는 지적마저도 옛말로 만들었다. 여자 솔로 가수로서는 보기 드문 거대한 규모의 팬클럽과 한국 여자 가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했던 점과 2년 연속 KSPO 돔(전 올림픽체조경기장)에 입성하며 단 몇 초만에 전석을 매진시키는 그녀의 콘서트 동원력은 팬덤 규모를 입증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2022년 9월, 한국 여자 가수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 입성하며 대중음악계에 중대한 획을 그었다.

6pt

한국갤럽 이외의 설문에서도 최정상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가수와 배우, 개그맨 등 국내의 모든 연예인을 통틀어 진행한 데일리 스포츠한국 선정 한국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2019년, 2021년에는 유재석 다음으로 높은 2위에, 2020년에는 3위에 선정되었다. 50개 가요기획사가 참여한 2020년 가요계 파워피플 설문조사에서는 솔로 가수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선정되었고, 대표 연예 기획사의 수장들이 포함된 가요계를 움직이는 파워피플 부문에서는 현역 가수 중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여자 가수로서도 솔로 가수로서도 아이유가 유일했다. 같은 해 시사저널에서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매체에서 조사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게 할지 묻는 설문조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연예계 인물 부문에서 2021년에 9위, 2022년에는 전문가 조사 9위, 일반인 조사 6위에 선정되었다. SNS 상에서도 국내 연예인 중에서 손에 꼽힐 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

90pt

서태지

40pt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30pt

조용필과 더불어 대한민국 대중 가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20pt

중학교 재학 시절 처음 음악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음악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라기보다는 길을 걷던 중 악기점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품을 재고 싶고 뭔가
멋지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8pt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꼬드겨 5인조 스쿨 밴드 ‘하늘벽’을 결성하면서 최초의 밴드 사운드에 입문하게 된다. 그러나 결성 당시 제대로 된 악기를 가진 멤버는 악기를 산 본인뿐이라 나머지 멤버는 통기타, 피아노, 집에 있던 의자와 선풍기 날로 급조한 드럼을 악기로 사용했다고 한다. 소꿉장난에 가깝게 시작한 밴드였다.

14pt

1989년 80년대 메탈키드의 롤모델이었던 록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로 아티스트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1992년 3인조 랩 댄스 트리오 서태지와 아이들로 오버그라운드에 데뷔하였다. 당시 이태원 클럽 음악으로 천대받던 댄스 뮤직을 대중에게 알리며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로 17주 동안 가요 차트 1위를 수성한 전설적인 뮤지션. 이후 3인조 활동을 통해 힙합, 발라드, 일렉트로니카, 스래시 메탈, 갱스터 뮤직 등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를 소화하며 음반을 발표하는 족족 사회에 신드롬을 일으켰다. 1998년 솔로로 전향한 이후에는 밴드 사운드 활동에 매진해왔다.

11pt

잠정 은퇴한 지 2년 후 1998년 7월 7일 서태지는 갑자기 첫 번째 솔로 음반을 발표했다. 훗날 서태지는 당시를 회고하며 “은퇴를 선언했을 때 음악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년의 휴식 끝에 음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첫 솔로 음반을 발표할 당시 “연예인으로는 은퇴한 서태지가 음악가로서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 음반은 아무런 제목도 없이 Seo Tai Ji(서태지)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으며, 수록된 6곡의 노래 모두 특정한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6곡의 노래와 3곡의 간주곡이 담긴 28분짜리 소형 음반으로, 보라색 케이스에 담겨 발매되었다.

8pt

서태지는 거리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1990년대 패션유행을 선도했다. 1집 <난 알아요>에서는 밝은 랩댄스곡에 어울리도록 상표를 떼지 않은 원색 의상과 컬러풀한 티셔츠를 착용한 스쿨룩 패션을 선보였고 2집 <하여가>에서는 새로운 장르인 레게와 힙합에 맞춰 힙합바지와 레게머리를 했다. 힙합바지는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다른 스타일로 금세 바뀌어 했지만, 레게머리는 청소년층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00년에 서태지가 귀국할 때 입고 들어온 삼지창 흑백무늬의 옷은 명절 전후 경향의 옷가게에서 날개 돌친 듯 팔리고 있었다. 헤드뱅잉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박스형의 티셔츠와 데님 팬츠의 세미 힙합 스타일이 유행이었다.

6pt

1993년 6월에 발표된 2집은 첫 활동 곡으로 <하여가>를 발표하여 국내 최초로 2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다시 한번 각 방송사 및 언론사의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휩쓸었다. 그리고 1994년 8월에 3집을 발표하였다. 3집에는 기존 음반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사회적 메시지가 수록되었고 통일을 다룬 <발해를 꿈꾸며>의 성공과 교실 이데아 소동 등 크나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1992년-1995년에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당대 아티스트들이 모인 환경 콘서트인 <내일은 늦으리>에 참가하여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더했다. 일본에도 진출하여 1994년에는 일본판 음반을 발매하였다. 3집에서 댄스적인 색채를 없애고 록, 메탈 등을 선보인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5년 10월 4집을 발매함과 동시에 갱스터 랩 스타일의 <컴백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컴백홀> 방송 출연 당시 립싱크 공연 때에 마이크를 아예 소지하지 않는 등의 파격 행위도 이어졌다. 현재 한국 아이들의 기원이 되는 많은 시스템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90pt

자우림

40pt

1997년 데뷔 이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최장수 혼성
3인조 록밴드이다.

30pt

자우림은 영화 «꽃을 든 남자»의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노래
«헤이 헤이 헤이»로 데뷔했다.

20pt

2008년 6월에 발표한 7집 이후 3년여 만인 2011년
8월 8집 «음모론»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컴백과 함께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확정지어 7월 25일부터 경연에 참여했다.

18pt

1997년 <Hey, Hey, Hey>를 시작으로 <밀랍천사>, <매직 카펫 라이드>, <팬이야>, <하하하송>, <스물다섯, 스물하나>등 다채로운 콘셉트의 곡을 통해 청춘과 인간, 사회에 관한 주제를 꾸준히 다루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자쭈빛 비가 내리는 숲’을 의미하는 밴드명처럼 몽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14pt

2017년 6월 28일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드러머 구태훈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며 구태훈 멤버가 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해와 응원 부탁했다. 공연에서는 세션 드러머가 참여하고 있으며 검색창에 자우림을 검색하면 자우림의 프로필에서 이선규, 김진만, 김윤아 세 명의 멤버만 나오게 된다. 구태훈은 1990년대 중반에 기획자가 되기 위해 드럼 연주를 접었으나, 자우림의 음악을 듣고 회사에 사표를 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먼 길을 돌아와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11pt

정규 앨범 사이사이에 멤버들 각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김윤아는 2001년 «봄날은 간다» OST 이후 네 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하였고, «김윤아의 뮤직웨이»나 «마담B의 살롱»같은 음악프로 MC 등을 하였다. 2011년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멘토로 출연하거나 영화출연, 패션화보 촬영 등 가장 활발한 개인활동을 하고있다. 블랙코미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심수봉 역할로 출연하였는데 엔카를 정말 찰지게 부른다. 이선규와 김진만은 퍼니파우더의 이승복과 프로젝트 밴드 ‘초코크림롤스’를 결성하여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또 이선규는 절친 김C와 함께 ‘페퍼민트 클럽’, ‘론리 허스 밴드’등의 프로젝트 밴드를 하였다.

8pt

평론가들과 사이가 한참 안좋은 시절 ‘보컬이 다른 파트를 다 누른다’ ‘자우림 거 김윤아 밴드다’ ‘자우림의 음악은 진정성이 없다’는 말들이 나왔으나, 멤버 변동 없이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다. 애초에 그런 식이었다면 성인 네 명이 모인 팀이 십 년 넘게 지속될 리가 없으니. 음악에 대한 평가야 다양하겠으나, 적어도 밴드음악의 불모지에서 20년 넘게 멤버교체 없이 음악만 해 온 밴드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시비를 건 본인만 머쓱한 일이 되어버렸다. 평론가들과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 1-4집까지는 그래도 우호적이었으나 5-6집 시기에는 흑평이 쏟아졌다.

6pt

밴드의 생명은 신뢰와 의리다. 예컨대 영국 밴드 오아시스처럼 드러머가 드럼을 너무 못 쳐 일방적으로 해고했을 때가 바로 신뢰가 증발한 경우이고, 메탈리카처럼 리더가 멤버의 다른 활동을 통제해 그 멤버가 탈퇴한 경우가 바로 의리가 실종된 경우다. 밴드 역시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사람과 사람이 더 어울리지 못하면 그 팀은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자우림은 그런 면에서 행운이다. 아마 멤버들이 무작정, 억지로 잘 지내려고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진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각자의 타고난 성격 덕분이다. 아니, 성격보단 인격에 가깝겠다. 자우림 멤버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걸 중용시 하고 서로를 존중, 존경하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래서 김윤아는 지금 멤버들이 아니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당연히 누구 한 명이 혼자만 잘 되겠다고 팀을 나가려 했거나, 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했을 경우에도 자우림의 생명은 거기까지였을 거다.

90pt

윤미래 Natasha

40pt

미국 교포 출신 한국인 래퍼,
가수, 프로듀서, 작곡가
American-born South
Korean-based rapper

20pt

윤미래는 1981년 5월 31일 텍사스 포트 후드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라디오 디제이로 활동해왔다.

Natasha was born on May 31, 1981, in Fort Hood, Texas to a South Korean mother and an African-American father. Her father had been a radio DJ.

14pt

윤미래는 그녀의 영문 이름인 “타샤”를 줄여 “티”라는 이름으로 2001년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하였다. 같은 해에 «시간이 갈수록»이라는 그녀의 첫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녀의 두 번째 앨범은 «쌍둥이자리»와 그녀의 세 번째 앨범 «나의 사랑»에게는 그다음 해인 2002년에 발매되었다. 2006년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설립한 레이블인 정글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하였다.

Natasha debuted as a solo artist in 2001, under the moniker “T” which she shortened even more from “Tasha.” She released her first album, «As Time Goes By», that same year. Her second album, Gemini and her third album, «To My Love», were released the following year in 2002. In 2006, she joined Jungle Entertainment, a label founded by her now-husband Tiger JK.

11pt

윤미래와 타이거 제이케이 그리고 래퍼 비지는 2013년에 힙합 삼인조 엠에프비티와이를 결성하였다. 이 그룹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달콤한 꿈»은 발매되자마자 세종류의 한국 음악 차트들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프랑스 칸느의 콘서트에서 노래를 발표하였다. 엠에프비티와이는 타이거 제이케이의 새로운 레이블인 필 굿 뮤직과 그 해 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12월에 윤미래는 싱글 «천사»를 발매하였고, 노래는 네종류의 한국 음악 차트들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하였다.

Yoon, Tiger JK and rapper Bizzy, formed the hip hop trio MFBTY in 2013. The group’s first single, «Sweet Dream», ranked #1 on three Korean music charts shortly after its release. They had debuted the song at a concert in Cannes, France. MFBTY signed to Tiger JK’s newly created Feel Ghodd Music label later that year. In December 2014, Yoon released the single «Angel», which quickly became #1 on four Korean music charts.

8pt

윤미래와 래퍼 타이거 제이케이는 7년 동안의 연애 후, 2007년에 결혼하였다. 결혼을 통해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힙합 커플이 되었다. 이 커플은 또한 뮤지션으로도 함께 작업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타이거 제이케이는 프로듀싱, 래핑, 그리고 그녀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윤미래의 음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이거 JK와는 업타운 시절부터 친해졌으며 2007년에 결혼하여 2008년 3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들 조단을 낳았다. 윤미래는 한국 가족문화 사이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혔다. 2008년에는 그녀의 남편, 타이거 제이케이와 함께 다문화 유스 캠프에서 7개월동안 자원봉사를 하였다.

Natasha and rapper Tiger JK married in 2007 after keeping their relationship private for 7 years. With their marriage, they became the hip hop couple in the country. This couple creates a synergy when they work together in their professional lives as well. Tiger JK features in Natasha’s songs by producing them, rapping in them, and starring in her music videos. Natasha has also promote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within Korean families. In 2008, she volunteered for seven months at a multicultural youth camp with her husband, Tiger JK.

Sharp Grotesk Open Type Features

Stylistic Set 1 (Roman Only) - Alternate 'g'

g → g Original → Original

Stylistic Set 2 - Alternate 'I'

I → I Indiana → Indiana

Stylistic Set 4 - Mirrored Quote Marks

“ → “ “Quote” → “Quote”

Superscript / Subscript

(+ -=) 0123456789 / 0123456789(+ -=)

Case Sensitive Forms

@ < > « » - - - - - (CAT) → (cat)
 • () [] { } < > ¿ i

Languages

ISO 8859-1 / Latin1

Afrikaans, Albanian, Basque, Breton, Catalan, Catalan, Corsic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UK and US), Estonian, Faroese, Finnish, French, Galician, German, Hungarian, Icelandic, Indonesian, Irish, Irish (new orthography), Italian, Latin (basic classical orthography), Leonese, Luxembourgish (basic classical orthography), Malay, Manx, Māori, Norwegian (Bokmål and Nynorsk), Occitan, Portuguese, Rhaeto-Romanic, Scottish Gaelic, Spanish, Swahili, Swedish, Turkish, Walloon, Welsh

ISO 8859-2 / Latin2

Bosnian, Croatian, Czech, German, Hungarian, Polish, Romanian, Serbian (when in the Latin script), Slovak, Slovene, Upper Sorbian, and Lower Sorbian

ISO 8859-3 / Latin3

Esperanto, Maltese, Turkish

ISO 8859-4 / Latin4

Estonian, Latvian, Lithuanian, Greenlandic, Sami

ISO 8859-9 / Latin5

Turkish

ISO 8859-10 / Latin6

Nordic languages

ISO 8859-13 / Latin7

Baltic languages

ISO 8859-20 / Latin9

Afrikaans, Albanian, Breton, Catalan, Danish, Dutch[b], English (US and modern British), Estonian, Faroese, Finnish, French, Galician, German, Icelandic, Irish (New orthography), Italian, Kurdish (Unified Alphabet), Latin (basic classical orthography), Luxembourgish (basic classical orthography), Malay (Rumi script), Norwegian (Bokmål and Nynorsk), Occitan, Portuguese (European and Brazilian), Rhaeto-Romanic, Scottish Gaelic, Scots, Spanish, Swahili, Swedish, Tagalog, Walloon

ISO 8859-16 / Latin10

Albanian, Croatian, French, German, Hungarian, Irish Gaelic (new orthography), Italian, Polish, Romanian, Serbian, Slovenian

ISO 8859-11 / Hangul

Hangul, Lanna Tai, Pali

File formats

Desktop: OTF

Web: WOFF, TTF, EOT, SVG

App: OTF

Licences

Desktop License

This license is what you purchase to produce static graphics such as unembedded PDFs and web graphics, branding logos, and so on. Desktop fonts are licensed based on the number of computers in your organization that will download the font.

Webfont License

This license is what you purchase to use our typefaces on your website using the @font-face technology. Webfonts are licensed based on the number of website visitors per month.

Software Application License

This license is what you purchase to embed our fonts in a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embedding licens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Please send inquiries for a custom software license to info@sharptype.co.

About Sharp Type Co.

Sharp Type is a digital type foundry based in New York City. The foundry produces custom & retail typefaces for print, digital,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brands, design houses, and publications. Sharp Type designs typefaces with utility and beauty for the modern era.